

세계유산 무성서원에서 인문체험

정읍시,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
다음달 20일까지 체험·교육 다채
차·서에 체험, 유적지 탐방 등
유산 가치 홍보·문화적 경험 제공



무성서원을 찾은 방문객들이 다도체험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선비정신 체험하세요.”

정읍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9월부터 12월 20일까지 관광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차 시음과 서예 체험을 통해 무성서원의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차향과 묵향', 국내 세계유산 유적지를 탐방하며 유산의 의미를 되새기는 '세계유산 톨아보기',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동양고전 인문학을 학습하는 '동양고전인문학당'이 있다.

'차향과 묵향'은 무성서원 야외에서 진행돼 가족 단위 참여자나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서예

와 다도 체험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를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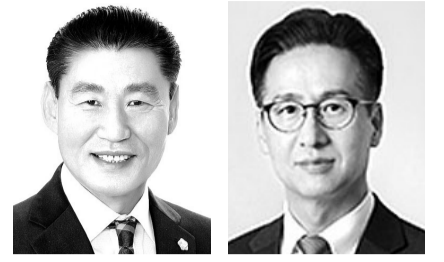
평일에 진행된 '동양고전인문학당'에서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유교경전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최치원 사상과 무성서원의 배향 인물들의 삶을 조명하며 깊이 있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무성서원을 활용한 이번 프로그램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무성서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송전선로 결사 반대·지역화폐 예산 편성

정읍시의회 정례회...고경윤·고성한 시의원, 결의안 각각 대표발의



고경윤 시의원 고성한 시의원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22일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345kV 신정읍-신계동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결사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한 고경윤 의원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정읍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재산권 침해는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은 34만5000볼트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115km 구간엔, 송전탑 250여 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없이,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을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지역 경제의 생명줄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 촉구 건의문’도 채택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주장한다.”

대표 발의한 고성한 의원은 “현 정부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과 지역화폐 사업은 지자체 고유의 사업이므로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많은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보고 있으며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25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즉각 편성 ▲지역화폐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미니수박연합, 농산물 생산단지 최우수

고창군은 미니수박연합회(회장 한동석)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2024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연합회는 농촌진흥청과 외부 농업전문가, 국민심사위원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1차에서 9개소가 선정된 뒤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으로 선발됐다.

연합회는 고창미니수박의 브랜드화를 위해 2022년 6개 작목반을 통합한 단체로 99명의 회원이 89.4ha에 미니수박 농사를 지으며 고창수박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미니수박의 발전을 위해 ▲미니수박 브랜드 육성지원 시범사업 ▲미니수박 도양 및 양분관리 기술 현장실증 연구사업(전

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 공동연구)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과 회원관리로 재배수준을 상황평준화하고 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지난 7월 11일 '2024 소비자 선정품' 품질만족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농산물 부분 대상을 받기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4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에 고창미니수박연합회가 선정되어 고창미니수박을 다시 한번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마케팅을 통해 최고품질의 고창 미니수박,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고창 미니수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다음달 협약...5년간 사업 진행

남원시가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비율, 성인지 통계 구축, 거버넌스 운영, 여성 역량강화 분야별 주요 사업 등 5개 영역 12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여성을 비롯한 약자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구현에 노력한 우수지자체를 가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다.

시는 2013년과 2018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

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세워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사업 목표를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남원'으로 정하고 여성친화도시 민간 거버넌스 강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과 편의 증진,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12월 중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한 뒤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내년 예산 9871억...긴축 재정 속 '선방'

전년보다 47억 감소...국·도비는 역대 최대 3745억 확보

남원시가 2025년도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7억원이 감소한 9871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7% 163억원이 줄어든 920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2% 116억원이 늘어난 665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자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출을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 우수 선정으로 도내 유일 최대 금액인 160억원을 확보했고 국·도비 역시 역대 최대인 3745억원을 확보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 본예산 규모와 비슷하게 유지한 것은 지역 현안 사업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 정부부처, 전북자치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는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문화·관광·교육 거점도시로의 도약, 약자복지 지원과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보육환경 조성, 민생경제 활력 지원, 친환경 미래농업과 6차산업 선도,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6개 핵심 분야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의 주요 사업으로는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78억원) 및 바이오

- ◇남원시 2025년도 주요 사업
- 미래 신성장 육성
 -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78억
 - 바이오에스테팅센터 건립 77억
 -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 42억원
- 문화·관광·교육 거점도시 도약
 - 함파우 아트밸리 74억·한옥체험시설 25억
 - 만인공원·만인생태공원 조성 40억원
 -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 지원 44억원
- 민생경제 활력 지원
 - 남원사랑상품권 1100억 발행 할인보상 80억
 -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및 이차보전 6억
 - 카드수수료 지원 3억·상가 환경개선 3억
- 친환경 미래농업과 6차산업 선도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18억원
 -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10억
 - 농업재해 보험 40억·농민공익수당 76억
- 에스테팅센터 건립(77억원)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42억원)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및 산업화 지원(24억원) ▲정년 스마트 미꾸리양식 창업 시범학교 조성(34억원) 등에 예산이 편성됐다.

문화·관광·교육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예산은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74억원) 및 옷칠목공예 전시관 건립(20억원), 함파우 유원지 디지털테마파크 조성(12억원) ▲남원 한옥체험시설 조성(25억원) ▲남원읍성 발굴 및 복원(10억원) 및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발굴·정비(15억원), 만인공원·만인생태공원 조성(40억원)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 협력·지원(44억원) ▲동부권 학교 복합시설 건립(40억원) 등이 있다.

민생경제 활력 지원위한 예산은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및 이차보전(6억원), 카드수수료 지원(3억원), 상가 환경개선(3억원) ▲남원사랑상품권 1100억원 발행 할인보상금(80억원) ▲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3억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6억원), 남원형 쿼터스타 사업 및 남원형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 지원(4억원) 등이 편성됐다.

친환경 미래농업과 6차산업 선도를 위한 예산으로는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18억원)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10억원) ▲남원 대표작물 원푸드 육성(13억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7억원), 농업재해 보험료(40억원), 농민공익수당(76억원) 등이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긴축재정의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꼭 필요한 예산은 놓치지 않고 편성해 시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